방송가 소식

불교TV 8부작 '원효'

불교TV는 오는 19일부터 8부작 드라마 '원효'를 방영한다. 지난 86년 KBS에서 제작, 방영됐던 이 드라마는 탤런트 전무송씨가 원효스님 역을, 유지인씨가 요석공주 역을 맡았다.

BBS 개국 6돌 특집

BBS는 개국 6주년을 맞아 지난 1일 밤 10시 5분 〈불교방송, 그 새로운 희망의 큰 걸음으로〉를 방송, 자체진단의 자리를 가졌다.

석왕사 주지 영담스님, 조선일보 공종원 논설위원, 현대불교신문 최정희 편집국장이 출연, 불교방송의 임무,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방향을 진단했다. 특히 이날 좌담에서는 대구, 청주 지방방송국의 개국을 앞두고 양대 지방국의 희망과 포부, 그리고 자리매김도 점검했다.

'달마가~' 美서 LD출시

지난 90년 로카르노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배용균감독의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 세계 걸작영화만을 엄선하는 미국 보이저사의 LD시리즈 〈크라이테리언 컬렉션〉의 하나로 선정돼 최근 출시됐다.

'달마가~'은 지난 93년 8월 미국에 첫선을 보였으며 미국 비평가들로부터 기존의 관습을 깬 파격적인 실험정신과 불교에 기초한 철학적인 깊이를 지닌 독특한 작품이란 평가를 얻었다.

교계 청소년 수련원 설립 '열풍'

괴산·원주·예산·제주등 전국에 연수·학술회의등 유치 '심신단련'

청소년 불자들에게 신심과 극기를 심어줄 불교청소년 수련원 설립과 증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가 97년까지 4천3백억원을 투입하여 3백24개소의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데다 폐교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교계의 수련원 건립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진흥원의 괴산 다보수련이 올해 설립되며, 천태종 원주청소년수련원이 기공식을 갖고 총지종 예산수련원이 증축을, 제주 목부원이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강원도 원주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한다. 오는 6월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물공사에 돌입하는 천태종 원주 청소년수련원은 원주시 행구동 2만 3천여평(허가면적 8천여평)부지에 강의동 숙박동 식당동 등 3동의 건물과 운동장 야외집회장 테니스장 족구장 민속경기장 야영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35억여원의 예산으로 설립되는 천태종 원주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지도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반인과 불자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소년수련원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수련원 건립불사를 추진중인 장송재스님(총무원 인사국장)은 "이번 청소년수련원의 개원은 청소년들에게 불교에 쉽게 접근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설립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에 준공되는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의 다보수련원은 다가올 21세기를 책임질 젊은 불자들의 교육도량으로 충북 괴산 청천면 54만평 부지에 건립중이다.

다보수련원은 53평규모의 법당과 지상2층 지하1층 2백26평의 수련동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관련 진흥원의 권오현국장은 "앞으로 수련원의 규모를 확대하여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불자 청소년연수및 수련회와 학술회의등을 유치하여 한국불교 발전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충남 예산 청소년수련원에 95년 1개동을 건립한데 이어 올해에도 1개의 수련동을 증축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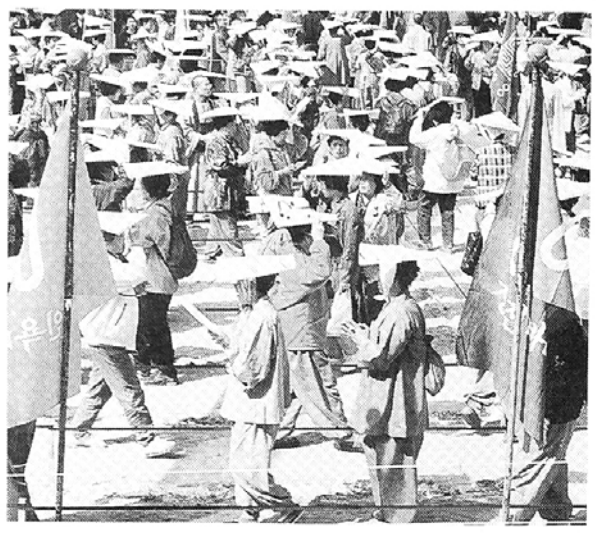
총지종의 법공통리원장은 "청소년포교가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며 "청소년수련원을 통해 종립학교인 부산 동해중학생과 불자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불교교리공부, 인내력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불자포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제주 목부원등 일부단체에서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추진중이며 기존의 화성 신흥사 청소년수련원(원장 성일스님)과 봉화산청소년수련원(원장 선진규법사)도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화성 신흥사는 청소년 교육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만들어 경기도지역 전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 부모은중경과 오계에 바탕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봉화산 청소년수련원도 수련대상을 전국의 일반학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촌어린이 축제와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한문학교를 개설하고 문제 학생들을 계도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온누리에 불법가득

제36회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가 전국 각지에서 3천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4월 26~27일 이틀간 해인사에서 봉행됐다.

불자들은 경책을 머리에 인채 의상조사의 법성게를 염송하며 온누리에 불법이 충만하길 기원했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태고종 홍보팀 구성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4월22일 종단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팀을 구성했다. 태고종 홍보팀은 주간·월간 단위로 종단의 활동사항과 행사예고를 자료집으로 낸다.

법등회 4주년 법회

대한불교법등회(회장 강자명심)는 지난 4월30일 오후 부산 허심청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천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박완일(전 조계종 신도회장)씨가 법사로 나서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종조탄생절 법회

진각종 10일 총인원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오는 10일 총인원 종조전에서 제95회 종조탄생절 봉축법회를 갖는다.

대구가스참사 1년 합동추모제

재난방지 백서 발간·위령탑 건립 추진

대구상인동 지하철 가스참사 1주기 합동추모제가 지난달 28일 동방상가앞 주차장에서 엄수됐다. 유족회의가 주최하고 대구사원연합회가 주관하여 불교의식으로 치러진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족들을 비롯 삼풍백화점 희생자유족대표, 원명스님(대구사연회장), 무공스님(동화사 주지), 문희갑 대구시장, 대구지역 국회의원당선자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하여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101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듯 이날 행사는 시종 유족들의 오열속에 진행됐다. 천도식은 인간문화재 제50호 범패이수자인 원명스님이 집전했다.

김흥국씨 불자가수회장 취임

세계 기아·난민돕기 '자비의 종 운동' 동참

인기 가수 김흥국씨가 지난 2일 대한불자가수회 제4대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자가수회 회원 30여명과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이 축하하는 가운데 거행된 회장 취임법회에서 김흥국 회장은 "초대회장을 맡았던 제가 다시 회장 임무를 맡게돼 책임이 무겁다"면서 "여러 선후배 가수들과 화합해 더욱 정진하는 불자가수회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흥국씨는 최근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가 세계 기아 난민돕기 기금마련을 위해 펼치고 있는 '자비의 종' 저금통 모금운동에 홍보맨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비의 종' 저금통은 서울은행과 연계, 전국의 서울은행 사찰 단체 등서 50만개가 무료 배포되고 있다.

(문의 02-732-1206)

◇난민돕기 모금운동 포스터.

목탁소리

봉안정신 살리는 '발굴의식'

이 경 숙 〈취재2부 차장〉

지난 4월 25일에 있은 감은사지 동(東)탑 해체작업은 매우 관심이 가는 작업이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답사여행 붐을 일으킨 유홍준씨가 자신의 책 표지사진으로 쓸 정도로 그 아름다움에 있어 완벽하다고 극찬하여 여느 탑보다도 대중적으로 알려진 감은사지탑.

수많은 탑이 있지만 다보탑 석가탑 외에 국민들이 "아! 그거"하고 알만한 탑으로 새로 등장한 감은사지탑에서 예상한대로 무늬가 화려하고 정교한 국보급 청동제 사리함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국보급 사리함 발견이라는 낭보외에도 이번 작업이 불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또 있다. 감은사지탑 발굴 착공전 성공적 복원과 성물(聖物)이운을 기원하는 불교의식이 스님들에 의해 처음으로 봉행됐기 때문이다. 불교계와 문화재 관리국은 불교문화재 발굴시에는 착공전에 반드시 불교의식을 봉행키로 하고 이번 감은사지탑 발굴부터 실시했다. 진작 했었어야 하는 일이다.

문화재가 수백년, 수천년을 넘어서도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것을 만든 이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솜씨의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손끝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다듬고 빚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문화재를 만든 선조들은 지금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극한 불심으로 정성을 다 했을 것이다.

그러한 성보들을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는가. 정성을 다해 보살피기는 커녕 물욕에 눈이 어두워 훼손 도난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지하에 묻혀있는 수많은 문화재들이 불도저에 파괴돼도 눈하나 깜짝 않는다. 성보문화재들의 보고인 불교도시 경주에 단지 경제이득만 따져 강행하려는 고속철도사업만 봐도 한심한 일이다.

성보문화재를 봉안하던 선조들의 그 지극한 마음을 되새기고 그 마음을 이어받아 문화재들을 보존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감은사지 동탑에서의 불교의식 봉행은 여러모로 뜻깊다.

부다피아 불교사이트 여행

젠 호스피스 프로젝트

병고이기는 명상법등 임종복지 프로

인터넷 가상공간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불교 사이트중 유일하게 불교 임종복지와 간호 자원봉사를 제공하는 '젠호스피스 프로젝트(Zen Hospice Project)'.

지난 87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선센타에서 시작된 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은 매년 3백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지역 의료 봉사활동을 활발히 돕고 있다.

젠호스피스 프로젝트 사이트를 방문하면 자원봉사 교육과정의 상세한 설명을 비롯 봉사자들의 체험담, 삶과 죽음 질병에 관한 정보, 열반경을 비롯한 경전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 훈련 프로그램은 정신적인 훈련과 실천적 행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젠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 참가자들은 명상의 훈련을 통해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을 키우며, 환자가 병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두려움을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젠호스피스 프로젝트는 지난 4월17일부터 '에이즈와 치매 환자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작했으며, 임펙트 온라인사에 의해 비영리 교육단체 베스트 웹사이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소 http://www.well.com/user/devaraja/

남수미 기자

명상으로 에이즈 퇴치운동 개빈 헤리슨

"에이즈로 고통 당하는 환자에게 명상교육을 시키며 느끼는 보람은 그들이 명상을 통해 예전에 자신이 맛볼 수 없는 숭고한 행복을 경험하고, 죽음에 직면한 두려움과 고통을 반감시키는 일입니다." 개빈 헤리슨은 최근 불교계간지 〈트리사이클〉과의 인터뷰에서 에이즈 환자에게 명상교육을 시키며 느끼는 보람을 이렇게 피력했다.

현재 매사추세츠에서 위빠사나 센터를 운영하며 에이즈 감염 환자들에게 위빠사나 명상을 가르치고 있는 개빈 헤리슨은 지난 70년대 죠셉 골드스타인으로부터 수계받은 재가불자로서 '에이즈 퇴치운동' 등의 사회참여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반인종차별운동에 적극 가담해 옥고를 치루고 추방당하기도 했다.

현재 헤리슨이 운영하는 위빠사나 센터에서 명상교육을 받는 에이즈 환자는 50여명. 헤리슨에 따르면 이들이 겪고있는 HIV 바이러스 증세는 체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체온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증후 외에도 환자를 더욱 압박하는 것은 "에이즈라는 천형에 직면한 환자 개인의 정신적 고통과 패배감"이라고 헤리슨은 지적했다.

美 매사추세츠 '위빠사나 센터' 운영

AIDS환자 50여명 치료 '행복감' 경험

사실 위빠사나 명상교육을 받은 환자들은 숭고한 행복을 맛보고, 질병에 대해 예전에는 느낄수 없던 평온함을 체험했다고 한다. 혹은 자신의 영혼이 '일어서라'는 환청을 듣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헤리슨은 에이즈 감염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명상교육' 뿐만 아니라 고립된 환자를 위해 모임을 주선하는 일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종욱 기자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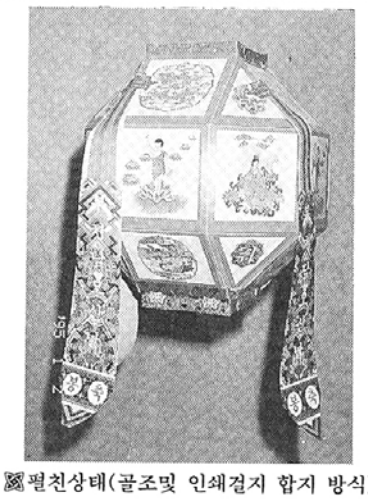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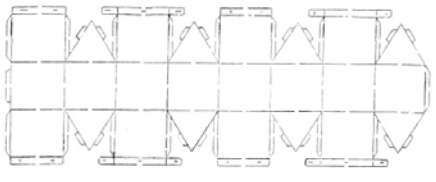
구입문의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북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층5호)
■대한 불교 조계종 보문 포교원(원장 각광 스님)
■부산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전화 (051)864-3740
본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전화 (0335)34-9490, 39-1906
이간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 (02)597-7581
서울강북지회 (02)747-7033
부산지회 (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 (053)323-2588
대전지회 (042)222-4936
광주지회 (062)228-8544
제주지회 (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 :(0331)291-8549
경남진주산청지회 (0396)73-0029
경남마산지회 (0551)23-9016
경남울산지회 (052)274-7536

실용신안 : 제14461호 의장등록 : 제12382호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칠이 필요 없습니다!!



펼친상태(골조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단 한번의 공정으로 2분내 완성

*전국 불교용품점 및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홍법등

오직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이·간·편·한·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2분내에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재·사·용·가·능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 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취급품목 봉축행사용품 일체
홍법팔각등, 초법등, 영가등, 천도광명등, 삼재소멸등, 만불기, 천수다라니번, 교패(불자의집, 교통안전기원패)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홍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TEL :(032)613-4027,4028
FAX :(032)665-0965